

업계, 내년 사용의무화 대비 개발 주력

누전차단기 생산업체들은 내년부터 고감도 누전차단기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개발 및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해, 시공회사들은 내년부터는 욕실에 공급되는 전원을 '정격감도전류 15mA 누전차단기'에 연결하거나 욕실 콘센트를 콧음접속식 누전차단기로 대체해야 한다.

누전차단기 생산업체들은 이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비, 고감도 누전차단기의 생산을 늘리는 한편 콧음접속식 누전차단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차단기와 배선기구를 함께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콧음접속식 누전차단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차단기만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고감도 누전차단기의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감도 누전차단기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며 "15mA 이외에도 5mA 이하의 누전차단기 사용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된 전기설비들은 정격감도전류 5mA 이하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거나 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누전을 더욱 민감하게 감지하는 고감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전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30mA 누전차단기가 사용되고 있다.

중기청, 생산정보화 132개 업체 선정

극동전선 등 132개 업체가 올해 중소기업생산정보화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은 '2003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대상으로 극동전선과 오리엔텍, 신한전기공업, 청운하이테크, 오성기전, 애드테크 등 전기기자재 제조업체 6곳을 포함해 총 132개 업체를 선정하



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132개 업체는 지난달까지 참여를 신청한 254개 중 중기청이 현장평가(30%)와 기술평가(70%)를 거쳐 선정됐다.

이 업체들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면 유·무선 네트워크로 생산설비와 컴퓨터를 연결,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설비를 제어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중소기업들이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기업당 생산정보화 사업 소요비용의 50% 한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정보시스템 개발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부터 '생산정보시스템 표준 감리 템플릿'을 새롭게 개발해 정보시스템 외부 감리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IT업체 간의 의견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제도도 도입, 생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시간 정보처리 기능 향상 ▲생산공정 최적화 ▲업무수행능력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 사업에 참가한 116개 업체 중 89%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불량품을 줄이는 등 효과를 거뒀다"며 "올해 선정된 업체들도 이같은 업무능률 향상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압용 전선 굵기 국제 표준화

고압용 전선의 굵기 규격이 올해 안에 국제표준으로 전면 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작년 말 비닐절연전선의 굵기 규격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중에 KS규격을 또다시 개정, 새로운 전선 굵기 규격을 모든 전선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전선굵기 규격을 새롭게 적용하면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의 전선관에 맞지 않을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계와 협의 적정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작년 비닐절연전선의 굵기 규격을 개정할 때 내년 6월 말까지 신·구 규격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500mm² 이하 굵기는 비닐절연전선의 새로운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며 500mm² 이 넘는 굵기는 IEC규격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강제인증제도(CCC) 제도 추가 지원업체 선정

중소기업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시행에 대비한 대중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5개 인증 획득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6. 16 ~ 12. 30까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중국이 2003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강제인증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해당 중소기업의 관심부족과 관련정보의 입수 곤란으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동 사업을 지원한다고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밝혔다.

동 사업은 또한 대중국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업자원부·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추진, '03.3월부터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40여개 신청업체를 접수, 이중 인증품목을 보유한 *상원전기(대표 김재선), *오성기전(대표 문희봉), *운영(대표 정운범) 등 25개 지원업체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전문컨설팅을 선정하여 인증획득 업무를 일괄 대행토록 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컨설팅, 시험분석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최고 700만원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향후에도 동 인증제도의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업자원부·무역협회 등과 '03.6.20~30일까지 추가로 지원업체를 모집하고 이를 금년도 제3차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한편, 산업기술시험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동 제도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급적 해당업체가 금년내 인증을 받도록 신규 추가품목의 對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업체 및 소관 업종 단체에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관련기관인 현지 공관, 기술표준원,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연계하여 동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對중국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 「중소기업협력단」 운영

- 「중소기업협력단」 시범운영기관 선정·발표

- 영남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32개 기관 -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내 여러 기관을 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되며, 대학·연구기관도 중소기업 지원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은 대학과 연구기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전담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력단' 시범운영기관으로, 영남대, 포항공대, 두원공



대 등 29개 대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등 총 3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지난 5월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시범운영기관 참여를 희망한 54개 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과 지방, 일반대학·전문대학·연구기관,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중소기업협력단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에 설치된 다수의 산학협력 조직과 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종합지원기구로서,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창업보육센터 사업 ▲기술이전·교육사업 ▲대학·연구기관이 개별 설치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산학협력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상담·자문 등의 지원활동,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업무와 전문인력 및 시험장비,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등 구체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각 기관의 중소기업협력단 체제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관들이 중소기업협력단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산학협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세미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금년의 중소기업협력단 시범운영의 성과를 파악하여 내년부터 본격추진하며,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등 타부처가 대학·연구기관에 설치한 지원기관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www.koema.or.kr → 전기산업소식 참조

逆見本示를 이용한 수출마케팅 지원

산업자원부는 최근 일본 대기업들이 보다 저렴하게 원부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역견본시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여 새로운 수출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逆見本示’란 물품구매기업이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을 전시하고,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와 가격·물량·납기 등을 상담한다는 점에서 물품 공급자가 상품을 전시하여 구매자와 수출상담을 하는 통상적인 무역전시회와 차이가 있으며,
- 소규모의 공간을 활용한 전시·상담회 개최가 가능하고, 사전에 전시 주최자를 가교로 하여 Buyer와 Seller간의 충분한 정보교환을 통해 미리 전시회에 참가하는 상대를 정하게 되므로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